

日 단기 경기감, 코로나이전 수준 회복

- 수출·생산확대, 대기업제조업, 비제조업은 개선 느려

2021/04/01 일본경제신문

일본은행(일본)이 1일 발표한 3월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판)에서 대기업 제조업의 경기체감을 나타내는 업황판단 지수(DI)가 +5로 전번 2020년 12월 조사보다 15포인트 상승했음. 미중 등 해외경제의 개선으로 수출과 생산활동이 확대되었고 3사분기 연속 개선. 신형코로나 감염확대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 대기업 비제조업은 -1로 4포인트 상승했지만 개선 폭은 작음. 코로나로부터의 경기회복은 이극화의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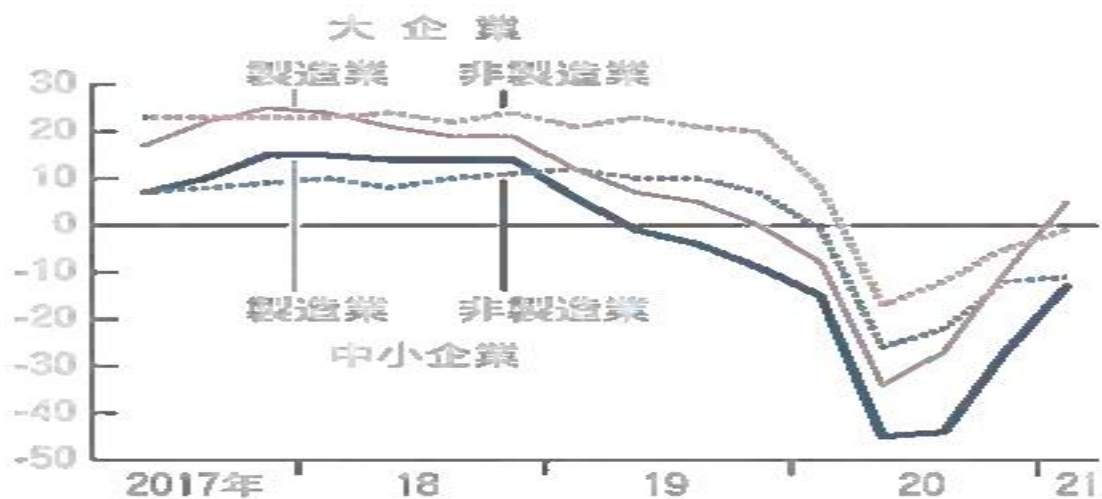
업황판단 DI는 경기감이 「양호」로 응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쁨」 비율을 뺀 수치임. 대기업 제조업은 신형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6월에는 리마쇼 크후의 수준과 비슷한 -34까지 떨어졌음. 그 이후 개선경향이 지속, 금번에 코로나 이전인 2019년 9월(+5)의 수준까지 개선. QUICK가 집계한 민간예측의 중심치(0)를 상회했음.

주요 16개 업종 가운데 13개 업종에서 개선되었음. 미중을 비롯하여 세계경제의 개선과 외환시장의 엔저 기조에 따른 수출환경 호전이 대부분 업종에서 호재로 작용. 자동차는 23포인트 개선되어 +10으로 코로나 전의 2019년 9월이후 플러스로 전환했음. 철강과 비철금속 등 소재 관련 업종에도 호재가 확산되었음. 리모트워크의 보급과 집안 생활 확대에 의한 IT 수요증가도 전기기계 등의 개선에 호재로 작용.

대기업 비제조업은 주요 12업종 가운데 7개 업종에서 개선되었음. 부동산과 정보 서비스 등의 업종이 상승했음. 단지 1월에 대도시권에서 긴급사태선언의 재발령으로 외출자제와 점포 영업시간 단축 움직임이 확대됨에 따라 대면형 서비스업은 대체적으로 침체된 결과.

정부의 관광수요환기책인 「Go To Travel」의 정지도 영향을 미쳐 전회는 경기감이 회복하였던 숙박·음식 서비스는 15포인트 악화의 -81로 떨어졌음. 레저 등의 대개인 서비스는 8포인트 악화의 -51. 서비스업의 회복이 더디어 대기업비제조업의 경기감은 코로나 이전의 2019년 12월 수준(+2)과는 아직 상당한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황판단지수(DI, 「양호」-「나쁨」)>



중소기업에서도 제조업은 14포인트 개선으로 -13, 비제조업은 1포인트 개선의 -11로 회복이라 하기는 어려움. 외출자제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숙박·음식은 규모가 작은 기업이 많아 서비스업의 어려움은 중소기업에서 보다 뚜렷함.

3개월 후 전망을 나타내는 DI는 대기업 제조업에서 +4로 지금보다 1포인트 악화될 전망. 반도체 부족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의 경기감이 악화. 금번 조사는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 반도체 대기업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의 공장 화재 영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의 회복은 한층 더딜 우려도 있음.

<경황판단지수(DI)의 내역>

	금번(지난번 대비)	선행(금번 대비)
대 기 업	5(15)	4(▲1)
	▲1(4)	▲1(0)
중견기업	▲2(15)	▲6(▲4)
	▲11(3)	▲12(▲1)
중소기업	▲13(14)	▲12(1)
	▲11(1)	▲16(▲5)
전 규 모	▲6(14)	▲7(▲1)
	▲9(2)	▲12(▲3)

※ 선행은 3개월 후의 전망. ▲는 마이너스, 악화. 상단은 제조업, 하단은 비제조업

설비투자, 재개 모색

- 3월 단관, 금년도 계획 0.5% 증가

2021/04/01 日本經濟新聞

일본이 1일 발표한 3월의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관)에서 2021년도의 설비투자 계획은 전규모 전산업에서 전년도비 0.5% 증가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신형코로나로 중지되었던 투자의 재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전년의 투자급감의 반동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업황이 어려운 서비스업은 투자에 신중한 자세가 지속

2020년도의 설비투자액은 전규모 전산업에서 전년도비 5.5% 감소로 2020년 12월의 전번 조사(3.9% 감소)보다 더 떨어짐.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2021년도의 계획은 0.5% 증가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투자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연도초의 계획은 마이너스로 되기 쉬우나 금번은 통계를 거슬러 올라가 1984년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가 되었음. QUIC이 집계한 민간예측의 중심치(0.3% 감소)도 상회했음. 다만 증가율은 소폭에 그침. 일본은 「지금까지의 설비투자 계획이 2021년도로 이월되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함.

업종별로도 차가 큼. 수출·생산의 개선으로 경기감이 개선되는 제조업에서는 전규모에서 3.0% 증가하였음. 고속통신규격 「5G」용 전자부품 등의 수요증가가 기여.

한편, 비제조업은 전규모에서 1.0% 감소. 특히 중소기업은 7.9%감소로 2020년도에 이어서 큰 폭의 마이너스가 전망됨. 코로나의 영향이 직격한 음식·숙박 등은 수익환경의 어려움이 지속.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억제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고용면에서도 온도차가 확산. 인원이 「과잉」이라 응답한 기업에서 「부족」의 비율을 뺀 고용인원판단DI는 전규모 제조업에서 -2로 7포인트 하락했고, 인력부족 상태로 전환되었음. 한편, 비제조업은 -20으로 답보. 구조적인 인력 부족감은 있지만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움.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은 완만하게 개선되었음. 자금조달이 「여유롭다」라고 응답한 기업에서 「어렵다」의 비율을 뺀 자금조달판단DI는 전규모 전산업에서 +9로 2포인트 개선. 비제조업이 답보인 반면, 제조업에서 5포인트 개선되었음.

일부 기업에서 매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자금조달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면도 있음. 정부·일본의 지원책도 효과를 발휘하고 금융기관은 용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서비스업 등에서는 매출의 회복이 불투명하여 자금조달이 여전히 어려운 기업도 있음. 현재는 억제되어 있는 기업 도산이 향후 급증하지 않을까? 낙관할 수 없음.

경제회복 기초의 경향

(丸山義正 SMBC日興証券 chief market economist) 가장 주목되고 있었던 비제조업의 경향판단은 횡보권 전망이지만 예상이상의 회복이었음. 숙박·음식과 대개인 서비스는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경제활동 개선의 영향으로 대사업소 서비스가 회복했음. 일본경제가 회복기조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음.

제조업은 큰 폭 개선했지만 자동차 등의 선행에는 반도체 공급 제약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 그러나 수요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꼬꾸라질 일은 없을 것임.